

“구제역 발생지서 들여온 상토 공급 안된다”

<모판홍>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못자리용 상토(床土=모판흙)가 해남에 공급될 예정이어서 지역 농·축산 농가가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해남군과 축산농가에 따르면 해남군은 농민들의 일손부족 해소와 생산비 절감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올해 10억8000만원을 투입해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전국 20여개 상토업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내고 업체 선정이 나왔다. 이때 군은 “2월 3일 현재 발생지역 이동 제한에 있는 시·군 소재 생산업체는 참여를 배제한다”는 원칙을 내걸어 10여개 업체는 등록조차 하지 못했다. 군

해남군 지원 사업 선정 업체

확진 판정 경주서 흙 들여와

지역농·축산농가 강력 반발

은 입찰에 참여한 8개 업체 가운데 5개 업체를 올해 해남군 상토공급 지정업체로 선정했다.

하지만 해남 축산농가는 “상토 지원사업 지정업체로 선정된 한 회사의 상토가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생산됐다”며 “지역내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업체는 경북 경주시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몰량 20ℓ 32만 포를 올해 해

남군 관내 신청농가에 공급할 예정이다.

경주시의 경우 지난 12일 한 축산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를 한 후 이튿날 구제역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 업체는 구제역 확진 판정일인 13일까지 운수회사를 통해 강진군 성전면 소재 회사 하차장에 해남군에 공급할 상토 18만 여포를 운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남군 양돈협회와 한우협회 소속 농가들은 “해남군이 상토 사업설명회 당시 사업시행 이전·후에 상토 생산지역에서 구제역과 AI(조류 인플루엔자) 등이 발생하면 사업에서 배제시킨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해당업체는 관내 상토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구제역 등이 발생되

면 발생지역 3km 이내는 ‘예찰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법적인 관리가 따른다”며 “생산업체의 상토는 구제역 발생지역과 같은 지역이라 지역 농·축산 농가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현재 하차돼 있는 18만여포 외의 몰량에 대해서는 공급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상토 공급업체 관계자는 “‘못자리 상토의 원자재인 ‘제올라이트’(Zeolite)는 경주와 포항에서만 생산돼 전국 상토업체에 공급되고 있는데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재를 한다는 건 이해 못 할 일’이라며 “비료 등 일부 농자재도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전국 각 지자체로 공급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진도군, 방어 300만미 방류

고군면 향동저수지에...내수면 어업 적극 육성

진도군이 주민들의 소득 증진을 위해 수산어종 방류에 나섰다.

진도군은 최근 고군면 향동저수지에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민물고기연구소에서 배양한 방어 수정란 300만 미를 방류했다. 군은 지난해에도 임회면 연동저수지에 방어와 잉어 등 1만 미를 방류한 바 있다.

진도군 수산자원과 관계자는 “농업용수로 사용중인 저수지에 내수면 고급어종을 방류해 농·어민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매년

국립 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 연구소와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민물고기 연구소에서 내수면 고급어종을 어업계와 협약 등을 통해 저수지 등에 방류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 관리저수지는 99개소(유역면적 3778ha)로 저수량이 좋고 수질이 깨끗해 외래 낚시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현재 관내 내수면 현황은 내수면 양식계 설립 3개소(하봉암, 연동, 소포만), 내수면 신고어업 7개소가 운영 중이다. /진도=박희석기자 hyark@

해남군 쓰레기 소각시설 노후화 심각

환경부에 신규설치 국비 20억원 요청

해남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전면 보수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군은 지난해 10월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면 대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소각시설에 대한 보수와 신규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폐기물처리시설 국고 보조사업에 대해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국비 20억원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특히 군은 소각시설에 대한 신규공법이 도입될 경우 지역을 새롭게 공모해 유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해남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지난 2004년에 준공해 10년 이상 가연성 폐기물을 처리해 왔다. 하지만 시설이 노후돼 매년 수억원의 유지보수비가 투입되고 있지만 소각효율이 떨어지는 등 정상가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해남군 관내에서 1일 40t 가량의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으나 시설용량(25t)에 미치지 못하는 1일 17t을 소각하고 있다.

군은 국비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쓰레기 소각처리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도입될 경우 지역을 새롭게 공모해 유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해남=박희석기자 dia@

해남군 20억원 들여

녹색디자인 거리 조성사업

해남군이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해남군은 총 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해남읍 읍내길 상가 밀집지역 일원을 대상으로 경관 디자인과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최근 군 상황실에서 실시 설계안에 대한 용역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사업은 ‘길, 시, 천, 정겹고 즐거운 읍내길 만들기’를 주제로 군정과 문화예술회관, 읍성터, 해남천, 상가 밀집지역이 있는 구간을 정겹고 즐거운 도시 길을 조성한다.

우선 문예길 보도가 화강석 등으로 포장되며, 읍성길 곳곳에는 보행자 도로를 조성한 후 의자와 조형물을 담아낸 가벽(街壁)을 설치해 쉼터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전면 길은 보행안전에 위해 조명 난간과 조명 열주(列柱=줄기등)를 설치해 이색적인 야간경관을 조성하고, 건축물 사이 공간에는 삼지 공원을 조성한다.

또 조명열주와 의자 등 편의시설 등에는 울돌목의 거센 조류와 공룡형상을 표현하거나 해남의 역사 및 문화적 글귀, 문인 소개내용을 삽입하면서 해남 스타일 디자인을 가미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실시설계안에 대한 검토와 보완 후 전남도 공공디자인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사업을 착공할 방침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 이미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슬로시티’로 지정된 완도 청산도에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015 청산도 슬로 걷기축제’가 열린다. 지난해 청산도를 찾아 ‘서편제 길’을 걷고 있는 관광객들. <완도군 제공>

청산도 슬로 걷기 ‘3색 손님맞이’ 마무리 박차

유채·청보리 단지 조성

4월 한달내내 축제 개최

완도군이 4월 ‘2015 청산도 슬로 걷기축제’ 준비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완도군은 청산도 슬로길 1 코스에 위치한 ‘서편제 길’과 봄의 왈츠 세트장 부근을 비롯해 완도타워 주변, 편백나무 숲, 완도수목원 인근 길 일원, 고급면사무소 인근에 경관작물 37.1ha와 준경관작물 17.2ha를 파종해 작물별 단지를 조성했다.

군은 청산도 슬로 걷기축제 주요 장소인 ‘서편제 길’과 봄의 왈츠 세트장 주변에 지

난 11월 중순부터 유채 15ha와 청보리 17.2ha를 파종하고 잡초제거 및 비료주기 등의 관리를 통해 봄철 관광객 맞이에 힘쓰고 있다.

특히 이곳은 유채꽃들의 노란 물결과 탁 트인 푸른 바다, 바람에 흔들리는 청보리 풍경이 관광객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관광명소이다.

군은 코스모스가 지는 11월 중순부터 청산도에 유채파종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실시했다. 특히 유채꽃 개화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4월 초에 맞춰 축제를 열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완도군의 주요 관광지인 완도수목

원 인근 길에도 유채꽃(10.6ha)과 헤리베지(4.7ha), 자운영 (2.1ha)씨를 파종했다. 완도군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완도타워는 현재 유채단지를 조성중이다.

이주찬 관광정책과장은 “2015 청산도 슬로걷기축제 기간 동안 축제와 더불어 활짝 필 유채꽃들이 청산도와 완도 주요 관광지의 자연과 어우러져 관광객들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슬로시티’ 청산도에서 ‘느림은 행복이다’라는 주제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2015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를 개최한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새 얼굴

“교실·학교중심 교육지원 펼칠 것”

유권철 완도교육지원청 교육장



“학생들을 위해 ‘꿈과 재능을 키우는 교실’과 ‘모두가 행복한 완도교육’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부임한 유권철(59) 완도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는 배움의 즐거움이 있는 곳이자 미래 핵심역량을 기르는 곳”이라며 “학부모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현하고, 교실중심·학교중심 우선의 교육지원 행정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독서·토론 수업을 활성화하고, 진로·직업교육에 충실하는 등 튼튼한 지식 기반으로 하는 학교 교육력 제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신인 출신인 유 교육장은 목포 덕인고와 목포고대, 광주교대를 졸업했으며, 전남도교육청 장학관, 함평 월야초등학교 교장 등을 역임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상무 Biz Tower

즉시입주가 가능 임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합니다. 쾌적한 업무환경과 여유로운 주차, 상무지구에서 가장 저렴한 임대, 관리비, 정직한 공용면적 적용으로 입주업체와 함께 동반성장 하겠습니다.

건물구분	권장업종	면적
1층	제과점 계약완료 편의점, 보세외류 임차예정	잔여 231㎡
2층	사무실	잔여 1201㎡
3층	사무실	1629㎡
4층	사무실	1267㎡
5층	사무실	1400㎡
6층	사무실	임대완료
7층	사무실	1400㎡
8층	사무실	1383㎡
9층	사무실	1367㎡
10층	사무실	1342㎡
11층	사무실	1307㎡
12층	사무실	임대완료
13층	사무실	임대완료
14층	사무실	잔여 111㎡

* 임대료 3.3㎡당 25,000원(4층 27,000원) 관리비 3.3㎡당 9,000원

상무비즈타워

(구 남영비즈타워)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로 103 (차평동 1210-4)
임대관리 010-7570-7525
관리실 : 062)381-5551 FAX : 062)384-5551

비즈니스호텔 W

광주 상륙!!

(구 백운동 국제관광호텔)

남구청이전 완료
광주제2차하철순환선 백운역 확정
백운고가로 철거후 지하화 확정
나주혁신도시 20분거리
봉선동 3지구 개발 진행중
주차시설(타워)60대 확보
백운광장 활성화가 기대되는 향후 투자까지 1순위 지역

8층 (1120㎡)	중식당, 한식당, 뷔페식당
7층 (1200㎡)	개인병원, 의원, 스카이라운지
6층 (1200㎡)	비즈니스 호텔
5층 (1200㎡)	비즈니스 호텔
4층 (1200㎡)	비즈니스 호텔
3층 (1200㎡)	비즈니스 호텔
2층 (1200㎡)	프랜차이즈 커피숍
1층 (2500㎡)	상가4동, 개인의원 약국, 편의점, 식당, 피부및사시실, 한의원, 판매시설, 침차전문점
지하1층 (2700㎡)	스포츠및사시, 유흥/단란주점, 노래방, 오락실
지하23층 (22000㎡)	사우나, 7080라이브, 나이트클럽, 콜라텍

국제비즈니스호텔 W

(구 백운동 국제관광호텔)
투자의 길을 아는 사람들
21세기 산업개발 (임대문의) 010-2112-3232